

## 한국인 최초의 서양의사 徐載弼 (1864~1951)

서재필은 분명히 한국이 낳은 최초의 서양 의사다.  
1세기 전 미국에 유학하여 처음으로 근대과학을 배운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과학의 선구자.  
서재필은 20세 조선조때 과거에 급제한 후 스승인  
김옥균의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망명길에 올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그는 이 독립신문을 통해 최초로 '박테리아'란 말과 함께  
근대 의학을 소개한 과학자다.

**나**는 아직도 그 책을 구해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의 책으로 김도태(金道泰)가 지은 「서재필박사 자서전」이란 것이 있다. 1948년에 나온 책이니 이제 꼭 50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이 책은 서재필에 대해 글 쓴 사람들마다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목이 내게는 '목의 가시'와도 같이 느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책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잘못 퍼져있는 의식의 근원이 되는 책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의사’와 ‘박사’의 혼란 불러

서재필(徐載弼, 1864~1951)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되어 귀국한 그를 사람들은 박사라고 불렀고, 그런 관행이 굳어져 해방 직후에는 그런 제목의 책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다시 그를 대중적인 ‘박사’로 임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미있게도 후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과 영국영화는 의사만 보면 덮어놓고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도 되었다. 영어로 의사와 박사는 모두 doctor이기 때문에 이 혼란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난 한 가지 못된 풍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노릇을 하려면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서는 힘들게 되어 버렸

朴星來

(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부총장 / 과학사)

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박사학위를 받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의사마다 쓸데없이 박사를 따야 하는 한국적 풍토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마 대단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영어 단어 하나의 잘못된 번역에서 시작되고, 영화 번역 잘못 때문에 지속되고 있으며, 그 원조가 바로 서재필인 셈이다.

분명히 서재필은 우리나라가 낳은 최초의 서양 의사다. 즉 그는 미국에 유학하여 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귀국한 첫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를 의사로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독립신문」으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과학사에 들어야 할 인물하면서도 과학사보다는 사회 정치사 쪽에 주역으로 보여진다.

### 1세기전 「독립신문」 창간

잘 알려진 것처럼 서재필은 1896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한 사람으로 작년 4월은 그가 「독립신문」을 창간한지 꼭 백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작년 4월에는 서재필이 ‘이달의 문화인물’로 뽑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는 ‘신문의 아버지’로서만 기억될 인물이 아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근대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바로 한국 근대의학의 최선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한

걸음 더 나가면, 서재필은 바로 한국 근대과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도 꼽을 수가 있다. 그야말로 1세기 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근대과학을 제대로 교육받은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재필은 우리 과학사에서 도 빼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된다고 하겠다. 다만 그의 근대신문 창간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 그의 과학사에 서의 위치는 자연히 작은 일로 보일 뿐이다.

### 20살에 과거 급제...망명길 올라

충남 논산이 고향인 서재필은 김옥균의 권유에 따라 처음에는 일본에 군사기술을 배우러 유학했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유학 비용이 없어 아홉달만에 귀국하고, 곧 1884년 갑신정변에는 그의 스승인 김옥균을 따라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반역죄에 걸려 모두 음독자살하거나 사형당하고 말았고, 그는 일본을 거쳐 1885년 미국에 도착했다. 그리고 신세계 미국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며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다. 이미 조선에서 20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또 일본에 유학하여 군사기술을 조금 배웠던 서재필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강등당한 처지가 된 셈이다.

이렇게 그는 착실하게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는 컬럼비아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것이다. 컬럼비아 의과대학은 지금의 컬럼비아대학이 아니라, 지금의 조지 워싱턴대학 의과대

학의 전신이었다. 여하튼 그는 1893년 6월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한국인 최초의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되었다. 서재필은 우리나라에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 대학교육을 받은 인물로도 꼽을 수 있다. 특히 그가 의과대학을 나왔다는 사실은 그를 한국 의학사 또는 한국 과학사의 첫 등장 인물로 꼽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의대를 나와 바로 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개업하고 있던 ‘미국인 의사’ 서재필은 1895년 말에는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이미 학교 다닐 때인 1888년 6월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 귀화하여 이름도 미국식으로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이라 부르고 있었다. 마침 미국에 갔던 박영효(朴泳孝)의 권유를 받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는 귀국을 결심했고, 귀국하여 곧 시작한 것이 1896년 4월부터의 「독립신문」 창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로 활약했지만, 그것은 주로 국민의 계몽과 사회의 개혁을 위한 운동이 중심이었다. 1898년 5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재필이 온갖 정열을 기울였던 일은 바로 「독립신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는 그 후 독립협회를 만들고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최초의 의사 서재필이 한국에 근대의학을 도입하는 데에는 이렇다할 공헌을 남기지 못했다. 또 최초의 의사였던 그는 당시로서는 거의 최초로 서양 근대과학

을 본바닥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인물이었던만, 당시 조선의 과학 발달이나 과학 교육에 이렇다할 역할을 담당하지도 않았다. 1세기 전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자가 필요없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가 한 일 가운데 그런대로 과학 보급과 관계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드물게 「독립신문」을 통해 과학지식을 국내에 소개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뿐이다. 「독립신문」은 지금부터 꼭 백년 전 1896년 4월 7일 창간되어, 3년 반 뒤인 1899년 12월 5일 폐간되었다. 이 신문은 처음에는 당연히 서재필 혼자 노력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조선에는 아직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찌다가 실려있는 과학기사는 모두 그가 미국에서 배워 들은 내용을 그런대로 소개하는 기사로 서재필의 과학에 대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독립신문에 '박테리아' 소개

아마 서재필은 이 땅에 '박테리아'란 말을 처음 들여온 인물일지 모른다. 「독립신문」 1896년 5월 19일자 '논설' 기사에는 바로 위생에 대해 말하면서 서울의 우물물 속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것을 서양 말로 '박테리아'라 부른다고 써 놓고 있다. 이 논설에서 서재필은 국민들은 각각 목욕을 해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

히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어서 채소를 먹을 때 조심하고, 우물물은 반드시 끓여서 식혔다가 마시게 하라고 권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채소나 우물물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괴질, 열병, 학질, 이질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생물은 기계 없이는 맨눈으로는 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기계라 한 것은 물론 현미경을 뜻한 말이다. 의사로서의 서재필이 처음으로 자기 의학적 지식을 「독립신문」을 통해 국민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된다. 위생을 강조하여 물을 반드시 끓여 먹으라는 권고는 같은 해 5월 2일자 '논설'에도 보인다.

서양 의학을 설명하는 논설은 1896년 12월 1일자 「독립신문」에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무지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서, 서양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7년의 교육을 받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은 물론 화학과 약물학 등의 시험에 합격한 다음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의사 노릇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제일 위태로운 사람이어서 함부로 침을 놓아 사람을 죽이는 수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람의 살을 베려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고, 또 그 기구들을 끓는 물에 넣고 끓여 박테리아를 죽인 다음에 사용해야 하건만 그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침을 함부로 놓는다는 것이다. 서재필은 정부가 아직 근대적인 의학교와 병원은 짓지 못하더라도 우선 침놓는 것을

금지할 것이고, 아울러 무당과 관수의 의료행위도 금지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국민의 과학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늦게서야 생각한 모양이다. 1897년 6월 17일자 '논설'에서 시작한 그의 '생물학'에 관한 기사는 14회나 계속되는데, 그런 길게 기획된 기사는 처음이다. 이 기사에서 그는 앞으로 틈이 나는대로 학문의 여러 분야를 소개하겠다고 말하고 먼저 '생물학'을 소개한다고 말하고 있다. 생물학이 이 땅에 그런대로 체계적으로 소개되는 첫 기록이 될 것 같다. 「독립신문」은 순한글로 쓴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글에서 서재필은 생물을 우선 금수, 초목, 금석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갔다. 14회나 계속된 기사는 전부 동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 기획에 식물(초목)에 대해 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기사가 계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그는 당시의 조선 정부와 틈이 벌어져 1897년 말에는 중추원 고문 자리에서 해고당했고, 5개월 뒤인 1898년 5월 14일 서울을 떠나 미국에 돌아가고 말았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창간과 독립협회의 건설자로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의사였던 그는 1세기 전에 이 땅에 근대 생물학의 기초를 전해준 과학 계몽가로서도 작은 몫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사를 하는 나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⑤7